

목회산책



박광현
광주예원교회 목사
청주문학회 신인상 수상(1997)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좋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보편적인 좋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좋음입니다. 자기는 좋지만 남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적인 좋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

고 누구에게나 옳고 그른 절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사실 "좋고 싫음"의 문제는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의 문제입니다. 나는 냉면을 좋아하지만 우리 딸들은 "아빠는 냉면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면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는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진리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명시하고 진리를 외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라도 보편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보편적으로 선한 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주관적 취향이기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절대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이웃들과의 갈등과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고 싫음과 옳고 그름

기에 편리하고, 자기입맛에 맞아만 좋아합니다. '싫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는 즐겁지 않고, 자기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옳더라도 싫어합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선과 악의 절대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상대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고 정의로워지려면 자기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 않

문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거나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하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면 자기가 손해보고 싫어도 동의해야하고, 그것이 그른 일이라면 자신이 불편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족이라도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자기는 매우 싫지만 보편적으로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매우 좋지만 보편적으로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21:25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의롭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주관적인 "좋고 싫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준, 또는 절대기준이란 뜻의 "캐논(Canon)"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에게 좋은 일보다는 절대로 옳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싫은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성칼럼



정형수
아시아교회 담임
InterCP 시역이사

이다. 그런데도 요나에게는 비둘기처럼 순진한 데도 없으며 아버지와는 달리 성실하지도 않다. 편협적 유대주의가 그를 웅졸한 예언자로 만들었다. 요나는 배(요나)를 타고 바다로 멀리 도망하면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육지가 아닌 바다로 나갔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역사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이방민족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앉으며 숨기

니아 히슈바 레히와베르' 그래서 I.C.C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자 그 배가 심사숙고했다. 깨어지게 될 것을,' '생각했다.'의 피일형(piel:강조능동)이다. '깊이 생각했다.'는 뜻이다. 골빈 비둘기 요나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무생물인 배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 배가 왜 이러한 큰 폭풍이 왜 다가와서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이때까지 요나는 배 밑창 저 구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요나가 잠든 것이 아니라 잠이 요나를 사로잡았다. 이제 선장 앞에 요나가 섰다. 요나 머리 위에 제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자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잡아냈다. '우리에게 잘 참 하라. 누구 때문에(베헬레미) 이 악한 것이 우리에게 왔느냐? 너의 땅(나)이 어디이며 너는 어느 백성으로부터 왔느냐?' 이 말은 '이 배에서 너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 라는 질문이다. 요나의 정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 2 고대 근동 학문과 구약 연구
Q. 구약 연구에서 최근에 다루던 고대 근동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구약 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학문을 하려면 신학도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또 구약의 다양한 관습과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대 근동의 자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거기서 배를 찾으려고 하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려면 일단 구약과 관련된 고대 근동학에 관한 책을 하나씩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문서선교회(CIC)에서 번역 출간하는 '고대 근동 시리즈'에 속한 책을 권합니다. 특히 필자가 번역한 '고대 근동 문화(알프레드 허트 외 지음 [CIC, 2012])는 구약에 등장하는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존 H. 윌튼 지음[CIC, 2017])은 고대 근동 학문과 구약의 관계 및 고대 근동 사상이 적용된 구약 해석을 제공합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 학문을 구약 연구에 적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종교는 매우 독특하기에 현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구약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성경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근동의 언어나 종교, 관습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장당하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의 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 자료와 관련된 구약 해석에서 개혁주의 성경관의 중요성.' '생신과 부흥' 16호(2015.1 201-220) <다음 호에 계속>

본인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와여 협력을 거쳐 제작했다. (신득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베셀레미, 베셀리

위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얼굴 앞에 있었다. 그 배의 목적지는 지중해 저 멀리 스페인이었다. 타르시스는 일찍이 해양민족 페니키아가 식민지로 만든 일이 있었다. 노도도 없고 계절풍도 없는 시기에 이 배는 출항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으며 큰 바람이 바다에 떠 있는 요나의 배를 향하여 달려왔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가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게 될 것을 간파했다. 원전은 이렇게 되었다. 배하오

받게 되었다. 이 배는 세계의 축소판이다. 각각 자기 민족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배는 니느웨를 상징할 수도 있다. 1.베셀레미(1:7, 누구 때문이냐?) 죽음의 환란이 배 안에 일어났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우성쳤으며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구원을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베셀레미)'이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기로 했다.

<다음 호에 계속>

4. 베셀레미(누구 때문이냐), 베셀리(나 때문이다) '요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반씩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로부터 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나 때문에(베셀리) 이 큰 폭풍이 당신들 위에 온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1:12 筆者私譯) 예언자 요나는 '골빈 비둘기'다. 이름처럼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처럼 머리가 빈 비둘기다. 아버지는 아메타이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신앙', '진리'와 같은 어원, 즉 '헤메트'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요나는 '성실한 자의 아들 비둘기'

미션21 후원교회

Grid of church information cards including: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만 남 의 교 회, 광 주 산 수 교 회, 세 움 교 회, 소 망 있 는 교 회, 기 독 교 회, 아 시 아 칩 레 교 회, 기 독 교 대 한 하 나 님 의 성 회 순 복 음 무 등 교 회, 동 암 교 회,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광 주 양 립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광 주 서 남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광 주 중 앙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광 주 은 광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광 주 예 은 교 회,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광 주 백 운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광 주 남 부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향 기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장 성 제 일 교 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열 린 교 회.